



「부피크 모나코」, 「반포 577」설계자와 「은평 뉴타운 현대 I PARK」시공자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본상「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복합단지」, 「금호아시아나 본관」, 「집운현」설계자와 「의정부 녹양 휴먼시아」시공자는 국무총리상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건축주는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일반 및 신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철암, 새 옷을 입다_ 산업유산에서 문화유산으로」의 유성분, 권지훈, 최재영 팀이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를 대상으로 1인에 한해 시상하는「올해의 건축문화인상」에는 '재단법인 목천 김정식 문화재단'을 설립, 친환경 분야에서 왕성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김정식 이사장이 선정돼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는 준공건축물부문 137점, 계획건축물부문 527점 등 총 664점이 응모했으며, 이들 수상작들은 시상식과 아울러 동 장소 전시장에서 10월 9일까지 전시됐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부터 건축문화 창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인간중심의 건축물, 환경과의 조화 및 또 건축계에 유능한 후진 발굴 및 창작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건축계소식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및 건축 UCC 공모전 개최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가 오는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건축의 대국민 소통'이라는 주제 하에 서울 광화문 미로스페이스에서 개최된다.

처음 개최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며, 건축사가 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반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변변찮은 현실에서 영화제는 건축사에게 의의가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축영화제는 건축을 부동산의 가치로만 보는 세태를 바로잡아,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과 건축사의 역할을 대중들이 보다 쉽고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몽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영화제에는 4일간 <렘 콜하스 Rem Koolhaas: A Kind of Architect>, <안토니오 가우디 Antonio Gaudi>, <마이 아키텍트 My Architect : Louis Kahn>, <마천루 The Fountainhead>, <프랭크 게리의 스케치 Sketches of Frank Gehry> 등 5편~6편의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또 부대행사로 UCC 건축공모전과 영화감독 및 건축사의 강연회가 계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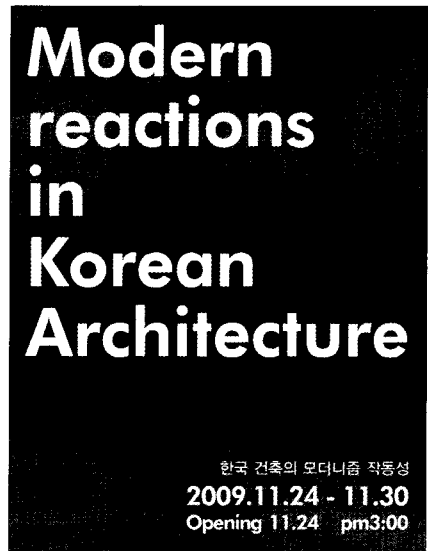
개막식은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

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영화배우 및 감독, 건축계 저명인사, 학계 및 기타 유력인사, 기자단(문화부) 등의 인사가 참석해 영화제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축하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제의 부대행사인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건축 UCC 공모전은 '공간 체험'이라는 공모 주제로 건축과 관련된 자유 주제의 순수 창작 작품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모한다. 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누구나 출품할 수 있으며, 3~5분 이내의 avi 포맷으로 제작하면 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 02-3415-6800

한국 건축의 모더니즘 작동성展



근대이후 현재까지 한국건축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는 '한국건축의 모더니즘 작동성 (Modern reactions in Korean Architecture)'전이 오는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예술의전당 디자인관에서 국제 심포지움과 함께 열린다.

한양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한국건축의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건축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건축가협회상 및 건축문화대상 등 각종 수상작품을 비롯해 근대이후 급속히 변화하는 도시 건축 및 풍경을 보여줌으로서 한국건축의 본질과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장소에서 전시 기간 중 계속되는 국제 심포지움에서는 한국에서 작동되고

있는 모더니즘의 적응성, 한국 건축의 주요작 동성과 지역특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조명함으로써 21세기 한국 현대 건축에서의 새로운 달문을 형성할 것이다.

2009 대전건축문화제



대전건축문화제가 '대전·사람·건축'을 주제로 11월 19일(목)부터 11월 23일(월)까지 대전광역시청에서 개최된다.

건축3단체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대전광역시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대전충남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전건축문화제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전건축문화제는 2009년 대전광역시의 시 출범 60주년과 광역시 출범 20주년을 맞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시민 축제이다.

제 1주제인 '대전/어제'는 대전 도시건축의 역사를 알아가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서 '대전 근대건축투어'와 '근대건축 모형만들기' 두 행사가 준비됐다. 근대건축투어는 대전시청에서 집결하여 구도심의 근대건축과 시청을 투어하며 퀴즈시트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기념품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근대건축에의 관심을 유도하며, 모형만들기는 종이모형디자이너인 장형순씨에게 근대건축 2점을 의뢰하여 쉽고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 모형을 제작하여 초등학교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 2주제인 '사람/오늘'은 대전 도시건축의 오늘을 즐기자는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

으로서 '대전오늘 시민사진전'과 '대전건축학생작품전' 행사가 준비됐다. 시민 사진전은 '대전의 사랑하는 사람들, 활기찬 대전, 우리가 모르는 대전, 살기 좋은 동네 대전, 감동을 주는 대전 건축물'의 주제 중 택일하여 촬영하되 반드시 대전광역시 내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만 11월 13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학생작품전은 대전 및 인근 11개 대학 도시, 건축, 실내건축 관련 13개 학과의 대학생 70여 명이 대학별 우수작품 초대형식으로 참여하며, 대전광역시 건축대전 특별관도 마련된다.

제 3주제인 '건축/내일'은 대전 도시건축의 미래에 대해 '대전 도시미래 집담회'와 '대전 퓨처폴라' 두 프로그램을 통해 대전의 도시미래를 꿈꾸게 한다. 대전도시미래 집담회는 지자체,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대전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과 담론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대전퓨처폴라'는 대전의 교수와 건축사팀의 공동작품으로 대전시청 남문 잔디광장에 실험적인 건축구조물인 폴리를 세워 시민들의 정겨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지원행사로 친환경디자인공모전 전시회, 3차원 영상 체험행사, 유니버설디자인 세미나, 도시디자인포럼 등을 개최한다.

- 문의 : 대전건축문화제 집행위원회 042-534-0570, www.daf2009.or.kr

트리엔날레 디자인 뮤지엄 개관전

인천광역시, 이탈리아 밀라노시, 피에라인 천천시복합단지(주)가 주최하고 CONCEPT·월간 MARU가 주관하는 트리엔날레 디자인 뮤지엄 개관전이 오는 10월 6일부터 2010년 7월 11일까지 약 9개월 간 인천 운서동에 위치한 트리엔날레 인천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탈리아 디자인의 일급가지 집념, 밀라노 디자인 시티 블루 여반 메트릭스, 레오나르도 다 빈치 특별전 'Nature, Art & Science' 등 세계 디자인을 움직이는 이탈리아 명품 디자인 205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 문의 : 트리엔날레 인천
www.triennaleincheon.com, 032-425-1762

제4회「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작품 공모

(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에서는 국내 건축문화에 생태건축의 이념 확산 및 친환경 패러다임이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을 개최한다.

수상부문은 설계부문/기술부문/정책부문/기타부문 등으로 작품접수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수상 발표는 11월 13일이다.

- 문의 : (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사무국, 02-501-4053

KCC창호, '2009 한국사용품질지수(KS-QEI)' 1위 수상



KCC 창호가 2009 한국사용품질지수 창세트 부문 1위 수상하며, KCC영업본부 건자재총괄 최성수 상무(왼쪽)가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건축자재 전문기업 KCC가 한국표준협회(KSA)에서 주관하는 '2009 한국사용품질지수(KS-QEI)' 창세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사용품질지수란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 지수연구회가 제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와 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측정모델로,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경험자 및 제품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종합지표이다. 이는 소비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전문가 평가를 반영하므로 특히 조사 신뢰성이 높은 지수로 평가된다.

KCC는 지난 1994년 창호제품을 처음 출시한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치열한 국내 창호시장에서 30% 가량의 점유하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장은 차별화된 디자인, 시공 편의성을 부여한 기능적 설계를 바탕으로

하는 제품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품질관리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1999년에는 KCC 창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에너지 위너상 2000' 을 수상하였으며 2002년에는 제5회 에너지 혁신 대회에서 기술개발 조직의 에너지 기술 전략, 혁신 프로세스, 생산 제품의 정부고시 기준 대비 단열?기밀 성능의 우수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인정받아 '2002 대한민국 에너지 대상' 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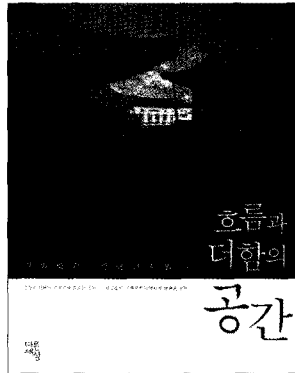
KCC는 고품격 PVC 발코니 창호인 '프라임' 을 비롯하여 발코니 확장에 최적화 된 발코니 이중창 '프라임 이중창',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내풍압 성능을 확보한 초고층용 시스템창호 '슈퍼윈' 등 창호와 관련된 전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아파트 외관 차별화를 요구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프라임 이중창 분할식 248, 커튼월형 PVC 시스템 창호 출시를 비롯하여 다양한 색상을 창호 외관에 부여할 수 있는 PVC용 불소도료를 창호에 적용하는 등 고객만족도를 증대하고 있으며 친환경,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 중심의 주택 질 향상을 위하여 KCC 기능성유리와 의 시스템화 및 고단열 창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창호 이맥스클럽(E-MAX CLUB)' 은 전주공장의 트레이닝 센터에서 창호 대리점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가·시공 솔루션을 제공,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별 시공품질 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로 시장 내 최고 품질의 제품 공급과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신간안내

안영배의 한국건축 읽기_흐름과 더함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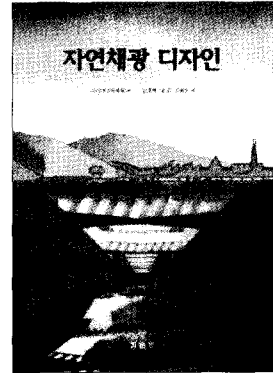
안영배 저 | 408쪽 | 도서출판 다른세상

한국의 전통건축은 중국이나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권역 국가들의 건축들에 비해 세계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실정에 안타까움을 느낀 저자는 '한국건축의 새로운 발견' 을 위해 통도사, 화엄사, 부석사, 해인사, 불국사, 범어사, 봉정사, 도산서원, 창덕궁, 부용지 정원, 종묘, 병산서원 등 각지의 전통건축들을 오랜 시간동안 직접 답사하고 연구하였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출간됐던 관련도서들을 분석·보완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저자가 특별히 선호했던 전통건축의 몇 가지 주제를 보완하고 소제목에서 공간 특성에 대한 글 표현을 좀 더 다듬었다. 글 내용도 그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사진과 도판을 중요도에 따라 재배열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 문의 : 02-739-8782

자연채광 디자인



(사)일본건축학회 편, 김정태·김 곤·김원우 역 | 252쪽 | 기문당

신간 '자연채광 디자인' 은 자연채광에 관한 최신 기술과 상황에 맞는 설계 자료를 정비함과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고, 자연채광의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근본적인 의의와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 책에 소개된 자연채광시스템들은 기존 건물이나 신축건물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고 그 효과가 검증된 자연채광시스템들이 조명이론과 함께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자가 자신이 설계하고자 하는 건물에 어떤 자연채광시스템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문의 : 02-2295-6171